

인지사회학 이론을 통한 정보추구행동의 사회적 측면 탐색*

**Exploring Social Aspects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using
Cognitive Sociology**

나은엽 (Eun Youp Rha)**

초 록

본 연구는 인지사회학 이론을 적용하여 정보추구행동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수행하는 과업의 사회적 맥락이 정보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지사회학의 주요 개념인 사고 공동체와 사회심리적 행위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사고 공동체의 유형인 학문 분야를 선정하였고, 비교연구법을 활용하여 인문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속한 연구자 12명(각 6명)을 대상으로 과업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행동을 그룹 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부가적 방법으로 다이어리 연구를 한 차례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고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과 관행이 개인의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인지 활동과 정보 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이를 토대로 정보추구행동의 인지사회적 영역이 존재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정보추구행동의 인지사회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 및 사회문화 집단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 aspects of task-base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by applying the theory of cognitive sociology.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social context of individual tasks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by utilizing key concepts of cognitive sociology, such as thought communities and sociomental acts. In this study, academic disciplines were selected as the types of thought communities.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wo groups chosen -six from the humanities and six from the natural sciences- focusing on their individual understanding and actions regarding a specific type of common task in academics, research proposal writing. As a qualitative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supplemented by a diary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ocial norms and practices of thought communities influence the cognitive activities and information behavior that occur during task perform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eveals the existence of a socio-cognitive domain i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This study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the cognitive sociological aspects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can serve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rvices and systems tailored to professionals and sociocultural groups.

키워드: 정보추구행위, 과업 중심 정보추구, 인지사회학, 사고 공동체, 사회심리적 행위, 과업 수행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task-based information seeking, cognitive sociology, thought communities, sociomental acts, task performance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yrha@knu.ac.kr)

■ 논문접수일자 : 2025년 2월 13일 ■ 최초심사일자 : 2025년 2월 25일 ■ 게재확정일자 : 2025년 2월 28일

■ 정보관리학회지, 42(1), 59-81,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1.059>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정보추구(information seeking)의 동기는 인간의 정보행동 연구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주로 정보요구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 외에도 문제적 상황, 불확실성, 격차(gap) 등과 같은 개념들도 이러한 정보추구의 동기로 정의되어 왔다(Belkin et al., 1982). 이와 같은 정보추구의 동기를 이해하려는 학문적 관심은 개인이 수행하는 과업(task)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과업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정보 문제를 표현하는 주요 예시이자 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yström, 2007; Gwizdka & Spence, 2006; Savolainen, 1995; Vakkari, 2003). 이에 따라 과업 중심 정보추구(task-based information seeking) 영역이 형성되면서 더 나은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 탐색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 행태 연구의 하위 분야로 발전해 왔다. 이와 관련된 주된 연구 분야로는 정보추구 및 정보검색의 맥락에서 과업을 개념화하여 과업 기반 정보 행태에 대한 개념적 근간을 마련하거나(Byström & Hansen, 2005; Toms, 2011; Vakkari, 2003) 과업의 유형 및 특징과 정보 검색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등이 있다(Byström & Järvelin, 1995; Liu et al., 2010; Toms et al., 2008). 이처럼 과업과 정보추구 및 정보검색 행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간의 정보 행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일반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개

인의 특정 동기 및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Byström, 2007) 과업 중심 정보추구행위는 개인의 지식수준, 기술, 동기 부여와 같은 개인의 인지적 속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보행동 연구 분야에서 개인적 속성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및 맥락 역시 개인의 정보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과업 중심 정보추구 분야에서도 역시 과업이 발생되고 수행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Byström, 2007; Byström & Kumpulainen, 2020; Byström & Lloyd, 2012; Talja & Nyce,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행동 관련 분야에서 여전히 과업 자체의 본질적 속성과 과업 수행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고, 과업의 사회적 측면과 과업으로부터 기인한 정보행동 간 관계에 대한 이해와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의 과업 중심 정보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과업 수행 시 과업의 사회적 맥락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인지 사회학(cognitive sociology) 이론을 적용하여 과업 수행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와 행동에 대한 과업의 사회적 맥락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정보 행동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인지적, 행위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과업 중심 정보추구행동(Task-base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2.1.1 개념

과업은 정보 탐색자의 문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정보추구행동을 이끄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Marchionini, 1997). 과업은 의도된 목표 또는 잠재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결과와 함께 물리적 행동의 일련의 과정을 수반하며, 목표나 목적을 제공한다(Toms, 2011). 이러한 과업은 정보추구가 일어나는 맥락과 상황을 강조하는 학문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정보 탐색자의 목표나 정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정보 탐색자의 동기, 지적 수준 등에서 더 나아가 개인이 정보 탐색을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과업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다(Li & Belkin, 2008). 따라서 과업은 개인의 정보 문제,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특히 과업은 개인의 정보추구의 동기 및 방법, 정보원의 유형, 정보의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 관련 활동을 축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yström & Hansen, 2005). 이러한 이유로 과업은 정보추구 및 정보검색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 왔다(Byström & Hansen, 2005).

과업 중심 정보추구는 주로 정보추구 활동 자체가 정보요구 및 목표를 반영하는 개인의 과업에 의해 축발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업 중심 정보추구 영역은 과업과 정보추구 과정 간의 관계를 강조하

는 정보추구 및 정보검색의 새로운 하위 그룹으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과업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한 정보추구 행위의 개념적,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Byström과 Järvelin (1995)은 개인이 특정 직업 환경에서 경험하는 과업과 그에 따른 정보요구 및 정보 이용 행동 간의 관계와 과정에 대한 정보추구 행동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업이 정보요구로 이어지고 이러한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되면서 정보추구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와 비슷하게 Leckie et al.(1996)은 개인의 특정 직무에서 발생하는 과업이 개인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정보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Ingwersen과 Järvelin(2006)은 직업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조직 및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과업을 중심으로 정보추구와 검색 행동이 나타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Byström과 Kumpulainen(2020)이 직장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개인의 과업 중심 정보요구(task-based information needs)에 대한 개념적 분석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2.1.2 영향 요소

과업이 정보추구 행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과업 중심 정보추구 및 검색 행동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규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과업 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과업의 맥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과업의 유형에 따른 정보추구 및 검색 행위와 관련하여 Kim(2006)은 사실적, 해석적, 탐색적 과업 유형에 따라 정보검색 행동이 어

떻게 다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Toms et al. (2008)은 사실 찾기, 정보 수집, 탐색, 거래를 포함하는 네 가지 과업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과업 유형이 개인의 검색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Liu et al.(2010)은 과업의 성격으로 복잡성, 과업의 산출물, 과업 목표, 과업 수준이라는 네 가지 차원을 기반으로 한 서로 다른 네 가지 과업 유형을 만들고 그에 따른 검색 행동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유사하게, Jiang et al.(2014)은 서로 다른 목표와 산출물을 가진 여러 과업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과업에서의 정보 검색 행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업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결국 개인의 정보 추구 및 검색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소는 과업 수행자의 개인적 특성이다. 과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동기와 목표에 의해 축발되는 개인적 활동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과업 수행자의 인지 상태에 따른 정보 탐색 행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과업의 난이도 및 복잡성, 과업 관련 도메인에 대한 사전 지식수준이 관련된 개인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Byström(2002)은 개인의 근무 환경에서 인식된 과업 복잡성이 정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고 Bell과 Ruthven(2004)은 웹 검색 자들의 과업 복잡성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인식이 검색 결과 및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비슷하게 Gwizdka와 Spence(2006)는 웹 검색자의 행동과 과업의 복잡성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Zhang과 Gwizdka (2014) 역시 서로 다른 수준의 난이도에 있는 과업에서의 정보 검색 행동을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예시들은 과제의 복잡성 및 난이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정보 탐색 과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개인의 사전 지식수준 역시 과업 기반 정보추구 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개인적 요소로 나타났다. Wildemuth(2004)는 과업의 주제 분야의 지식이 과업 수행자가 정보 검색 과정에서 검색 전략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했다. Hembrooke et al. (2005)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검색 선택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으며, White et al.(2009)은 동일한 과업에서 수행자의 사전 도메인 지식수준에 따라 웹 검색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드러냈다. Brand-Gruwel et al.(2017)은 웹 검색 과정에서 특정 도메인의 전문가와 초보자가 정보 출처를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과업에 대한 개인의 인식, 관련 지식수준 등이 과업 기반 정보추구 과정에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영향 요소는 과업의 맥락(context)이다. 특히 과업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맥락은 주로 과업이 발생되는 업무 및 직무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과업을 업무 과업(work task)으로 정의한다. 업무 과업은 개인이 직업 및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활동이다. Leckie et al.(1996)은 전문가들의 업무 과업 및 역할과 정보추구 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전문가의 정보추구 모델을 개발하였다. Byström과 Hansen (2005)은 실생활에서의 정보 추구 및 검색, 그리고 업무 과업 수행 간의 밀접한 상호 연결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Li와 Belkin(2010)은 업무 과업이 개인과 정보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업무 과업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개인이 이를 위해 쏟는 노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aastamoinen과 Järvelin(2017) 역시 업무 과업의 유형과 정보검색 과업의 특성 간 밀접한 관계에 대해 입증했다.

업무 과업 중심의 관점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과업의 맥락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이 부상했다. 이는 과업의 맥락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 가치, 의미, 또는 언어를 포함한 사회적 및 문화적 환경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업 중심 정보행동은 개인적인 행동보다는 공동체의 실천과 사회적 규범이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Byström과 Lloyd(2012)는 업무 과업 관련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과업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것이 개인적 인지 활동일지라도 단순한 개인적 판단이기보다 특정 직장 내 업무 과업의 복잡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된 관점을 반영하는 사회적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하게, Kallehauge(2010)는 정보 문제가 발생되는 업무 과업은 개인이 자신의 과업을 해결하는 장소의 사회경제적 발전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업의 맥락을 이해할 때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맥락을 해석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과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업무가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관습적 환경에 주목하는 새로운 관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업 자체가 지닌 개인적, 인지적 본질이 강한 만큼 과업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의가 적고 나아

가 이러한 과업이 사회문화적 측면과 개인의 정보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는 극히 드문 편이다.

2.2 인지사회학(Cognitive Sociology)

본 연구는 인지사회학을 적용하여 과업 중심 정보추구 행동의 사회적 차원을 탐구하였다. 인지사회학은 개인의 인지적 구조는 사회 커뮤니티의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학의 하위 분야다. 인지사회학은 개인의 인지적 구조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공동체에 의존한다고 강조한다. 초기 Mannheim(1949)은 사고의 사회학(the sociology of thinking)을 설명하며, 한 집단이 특정한 사고 스타일(thought styles)이 형성되고 그 집단 내 개인은 그 집단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고한다고 주장했다. Durkheim(2005)은 보편적(universal) 인간 또는 자율적 개인보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인간을 강조하며 개인의 인지 구조를 특정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보았으며, 보편적이고 단일한 사고방식의 개념을 거부했다. 그는 자아와 마음이 자연 환경과의 인간-객체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세계와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됨을 강조했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재의 인지사회학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Brekhus, 2015). 이후 Zerubavel(2009)은 사고의 사회학에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여 인지사회학이라는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자리 잡는 데 공헌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유일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보편적 인간으로서 사고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 환경에 의해 영향 및 제약을 받으며 사회적 존재로서 사

고하는 인간으로 설명한다(Zerubavel, 2009). 결국 인지사회학은 개인의 인지 활동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분리된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심층적인 인간의 인지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지사회학 이론은 과업 중심 정보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인지 활동의 사회적 측면을 조사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여 개인의 정보추구 과정과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심층적,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2.1 사고공동체(Thought Communities)

인지사회학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락,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지는 단순히 개인의 감각적 과정이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사회화의 산물로 여겨진다(Zerubavel, 2009). 이러한 사회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개인이 지적 상호 작용과 아이디어 교환에 참여하는 집단인 사고 공동체(thought communities)라고 일컫는다(Fleck, 1981). 이러한 사고 공동체의 예로는 직업, 세대, 사회 계층, 학문 분야, 종교 그룹 등이 있다(Brekhus, 2015). 이러한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은 공유된 인지 스타일을 받아들여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는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가지지만 다른 커뮤니티의 사고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Zerubavel, 2009). 그리고 이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커뮤니티에서 사회화를 통해 형성되는 인지적 행동을 사회심리적 행위(sociomental acts)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사회심리적”이라는 용어는 개인의 인지와 전체 인류의 인지 사이의 중간 수준

에 존재하는 인지적 삶의 근본적인 형태를 의미한다(Zerubavel, 1993).

2.2.2 사회심리적 행위(Sociomental Acts)

사고 공동체 내에서 사회심리적 통제는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지각(perceiving), 주의(attending), 범주화(classifying), 연상(associating), 기억(remembering)과 같은 사회심리적 행위로 이어지도록 돋는다(Zerubavel, 2009). 본 연구에서는 과업 중심 정보추구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행위로 지각과 주의 집중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지각(perceiving)은 현실의 해석과 관련된 인지 활동으로, 다른 인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인지 과정 중 하나이다 (Brekhus, 2015). 인지사회학에서 지각은 사회적 과정으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개인이 특정 ‘광학(optical) 공동체’라는 사회적 단위로 사회화되어 뚜렷한 사회적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Zerubavel, 2009). 결과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은 대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Zerubavel, 2009).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은 공통의 정신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사물을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의 사회적 측면은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 어떤 과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회심리적 행위는 주의(attending)로, 우리가 속한 사고 공동체가 무엇을 주목하

는 것과 무엇을 무시하는지와 같은 정신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Zerubavel, 2009). 사고 공동체의 구성원은 비구성원이 간과하거나 무관하다고 느끼는 것과 반대로 이를 알아보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관점을 개발하기 때문이다(Zerubavel, 2015). 따라서 관련성(relevance)과 무관함(irrelevance)을 구분하는 것은 커뮤니티 내에서 학습된 규범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과업과 연결 시켜보면, 과업 수행 시 개인이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정신적 사회화의 산물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동일한 과업일지라도 과업과 관련된 각 커뮤니티의 고유한 규범이나 관습으로 인해 커뮤니티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과업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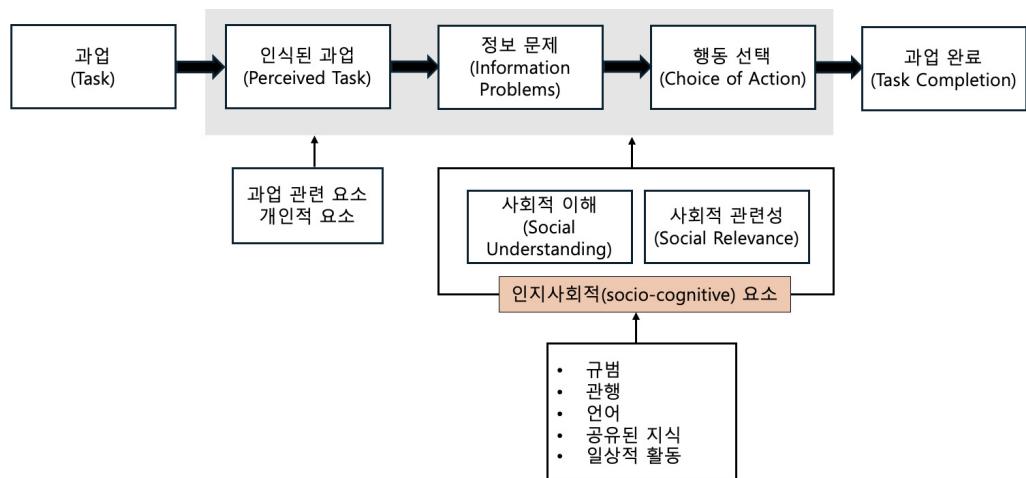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사회학에서의 사고 공동체와 사회심리적 행위, 그 중 지각과 주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과업의 사회적 맥락이 개인의 과업 중심 정보추구 과정 및 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2.3 이론적 모델과 연구 질문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과업 중심 정보추구행동의 이론적 모델(Rha, 2018)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 질문을 도출하였다. 본 모델은 인지사회학과 관행 이론(Practice Theory)을 기반으로 정보추구행위 과정을 모델화하였다. 그러나 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증 연구로서 본 모델을 적용하여 과업 중심 정보추구행위의 인지사회적 요소를 살펴보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본 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주어진 과업(Perceived Task)을 인식, 해석한 후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 문제(Information Problems)를 식별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문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하위 과업 및 정보를 포함한다. 이어서 식별된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행동의 선택(Choice of Action)으로



<그림 1> 과업 중심 정보추구행위 모델(Rha, 2018)

이어지며 여기에는 과업 수행자가 전체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돋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탐색 활동이 포함된다. 따라서 과업 중심 정보추구 과정에는 개인의 다양한 인지 활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과업의 유형이나 단계와 같은 과업 관련 요인과 개인의 지식수준 및 과업에 대한 친숙도와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서 Zerubavel(2009)의 인지사회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심리적 행위인 지각과 주의를 각각 적용한 사회적 이해(social understanding)와 사회적 관련성(social relevance)로 구성된 사회인지적(Socio-cognitive) 요소가 제안되었다(Rha, 2018), 나아가 이러한 요소는 특정 사회 내 존재하는 규범, 관습, 언어, 공유 지식 및 일상적 행위와 같은 요소들로 형성될 수 있다.

본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의 정보추구 과정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인지사회적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연구 질문(RQ)과 각 연구 질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위 질문을 생성하였다. 특히 사회적 측면을 탐색하기 위해 인지사회학에서 활용하는 비교 분석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도출하였다(Brekhus, 2015).

- RQ1. 과업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고 공동체 간 차이가 있는가?
-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가?
- RQ2. 과업에 대한 정보 문제 도출이 다른 사고 공동체 간 차이가 있는가?
-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차이의 이유

는 무엇인가?

- RQ3.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다른 사고 공동체 간 차이가 있는가?
-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가?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지적, 물리적 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행동의 '어떻게'와 '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회적 세계에서 사람들의 의미를 이해하며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풍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Corbin & Strauss, 2015). 또한, 개인이나 그룹이 특정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부여하는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해하는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Creswel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정신과 행동의 사회적 측면과 그러한 정신 및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개인 심층 인터뷰와 다이어리 연구가 선택되었다. 개인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로 본 연구의 주된 데이터 수집 도구로 사용되었고, 다이어리 연구는 개인의 과업 중심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도구로 적용되었다. 다이어리 연구 방법은 실제 과업 수행 중 나타나는 개인의 인지와 행동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여 개인 인터뷰에서 얻은 회고적 데이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 방법에서 수집된 데이

터는 동일한 질문지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3.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려한 기준은 사고 공동체의 유형, 과업 유형, 과업 수행 경험, 그리고 직업 연령이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학문 분야를 사고 공동체의 유형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는 두 가지 학문 분야에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인지사회학적 관점에서 학문 분야는 대표적인 사고 공동체의 유형이다. 학자들이 전문 지식을 배우고 분야 내 동료들과 사회적, 지적으로 교류하면서 전문적인 관점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사고 공동체의 핵심 유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Zerubavel(1995)은 학문적 정체성이 학자 개인의 사고 구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학자들이 자신이 속한 학문 영역에서 특정 정신적 벽으로 둘러쌓여 특정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공동체로서 학문 분야의 인지적 다양성은 이전 연구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Knorr-Cetina(1999)는 고에너지(high energy) 물리학과 분자 생물학이라는 두 과학 분야가 서로 다른 주의(attention)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험에서 문제 요소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Lamont(2009)는 각 학문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고유한 기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 학문 평가나 동료 평가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심리적 구조를 드러

낼 수 있는 사고 공동체의 유형으로 두 개의 학문 분야를 선택했다. 나아가 두 학문 분야 간 참가자들의 소속 집단 내 사회화 정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든 참가자를 종신 교수들로 한정했다.

두 집단 간 과업 중심 정보추구행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학계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유형의 과업을 한 가지 지정하였는데, 이는 외부의 편당 수주를 위한 과제 제안서 작성 과업이다. 과제 제안서 작성 과업은 연구비 및 펠로우십 지원과 같은 학문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안서 작성 과업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연구 과업은 교육 및 봉사와 함께 수행되는 주된 과업 유형이다(Dill, 1986). 특히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은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과업은 목표 지향적(goal-oriented)이며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하위 과업과 의사소통 및 정 추구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 연구 문제를 밝히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는 연구비 획득을 위한 연구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과업을 한 번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했다.

3.2 데이터 수집

본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 도구인 반구조화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참가자 모집을 위해 판단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저자가 미국의 한 고등 교육 기관

의 웹사이트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소속된 학과의 종신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모집 문건을 발송했다. 최종적으로 12명의 참가자(자연과학 6명, 인문학 6명)를 모집하였다. 인터뷰는 사전 동의를 받고 녹음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2시간 미만이었고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한 인터뷰 질문지를 기반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질문과 질문의 순서는 참가자의 답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질문지는 총 네 가지 주제인 참가자의 배경정보, 과업에 대한 인식, 관련된 하위 과업 유형, 과업 관련 정보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표 1>은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보여준다.

심층 인터뷰에 더하여, 한 명의 참가자를 통해 다이어리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질적 데이터를 얻었다. 다이어리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보다 심층적인 개인의 경험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과업 관련 행위에 대한 현실감이 강조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참가자가 실제로 과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다이어리를 작성하게 하여 보다 생생한 참가자의 생각, 행동, 감정 등에 대한 데이터를 얻도록 하였다. 다이어리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의 배경정보, 과업의 성격, 과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인터뷰 후, 참가자는 한 달 동안 주어진 과업인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며 사전에 만들어 진 온라인 다이어리 템플릿을 사용하여 정보 팀색 활동을 포함하는 하위 과업을 완료할 때마다 관련 내용을 기록하였다. 참가자가 과업을 완료한 후 약 일주일 후에 사후 인터뷰를 통해 참가를 마무리 하였다.

3.3 데이터 분석

데이터는 오픈 코딩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전사본은 질적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인터뷰의 전사본을 읽고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는 코드를 임시로 지정하고 이후 코드를 정렬, 통합 및 선택 단계를 통해 최종 코드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는 상위 주요 주제로 그룹화되었다. 코딩 과정 전반에 걸쳐 질적 데이터의 분석 전략인 지속적 비교 기법(Constant Comparison)이 활용되었다. 지속적 비교는 하나의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문서 내외에서 비교하여 두

<표 1> 면담 주제 및 내용

질문 영역	질문 내용
인적사항 및 과업 배경	연구자의 소속 학과, 연구자의 전공 및 학력, 교수 재직 기간, 연구계획서 작성 기간, 연구계획서 작성 빈도
과업에 대한 인식	연구계획서 작성 과업의 중요성 및 관련성, 연구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연구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 및 우선순위
하위 과업	연구계획서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
정보활동	연구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추구활동, 기타 정보 관련 활동(이용, 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데이터가 개념적으로 동일, 또는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로, 이러한 비교는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개념으로 축소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Corbin & Strauss, 2015).

코딩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코딩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ICR)가 측정되었다. ICR은 다른 코더들이 텍스트의 특성을 평가할 때 유사한 코딩 결정을 내리는 정도를 평가한다(Kurasaki, 2000). ICR을 위해 익명 처리된 전체 데이터의 약 20%(총 세 개의 전사본)를 두 명의 다른 코더에게 보냈다. 첫 번째 코더는 다른 코더들에게 전사본을 코딩하는 방법을 코드북을 통해 교육했다. 세 명의 코더가 함께 계산한 최종 ICR 값은 0.75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70 이상의 ICR 값이 탐색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Lombard et al., 2002), 코딩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코드가 확정된 뒤 코드의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두 분야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개별 코드의 발생 횟수가 대체로 적었기 때문에 일관적,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차이 분석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의했다(〈표 2〉 참조). 이 기준을 기반으로 두 그룹이 유사한지 다른지를 판단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배경 정보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미국에 위치한 동일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연과학 및 인문학 분야의 종신 재직 교수들이었다. 총 12명 참여자는 자연과학 분야 교수 6명과 인문학 분야 교수 6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중 11명은 개별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자연과학 분야의 참여자 1명은 한 달 동안 다이어리 연구에 참여하여 두 가지 제안서를 기반으로 총 16개의 다이어리 항목을 제출하였다.

참여자 그룹의 평균 전문 경력 연차는 각각 21년과 20.8년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각 참여자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답변을 인용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명할 때 해당 번호를 사용하였다. 〈표 3〉은 각 참여자의 번호, 소속 학과, 전문 경력 연차,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4.2 과업에 대한 인식

과제 제안서 작성 과업에 대한 개인의 이해 정도에 있어 두 커뮤니티 사이 차이를 보였는

〈표 2〉 비교 규칙

구분	정의	코드 비교 예시
차이 있음	두 분야의 코드 빈도수가 두 개 이상 차이가 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드 “펠로우십” : 1 (자연과학) vs 6 (인문학) 코드 “협업하기” : 2 (자연과학) vs 0 (인문학)
차이 없음	두 분야의 코드 빈도수가 같거나 하나만 차이가 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드 “피드백” : 1 (자연과학) vs 1 (인문학) 코드 “제출을 위해 자료 취합하기” : 2 (자연과학) vs 1 (인문학)

〈표 3〉 연구 참여자 배경 정보

참여자 번호	분야	전공분야	교수 재직 기간(년)	연구방법
P1	자연과학	생태학	20	심층면담
P2	자연과학	환경학	15	심층면담
P3	자연과학	해양학	24	심층면담
P4	자연과학	미생물학	20	심층면담
P5	자연과학	미생물학	28	심층면담
P6	자연과학	신경학	19	심층면담+다이어리
P7	인문학	종교학	26	심층면담
P8	인문학	예술사학	39	심층면담
P9	인문학	역사학	17	심층면담
P10	인문학	언어학	12	심층면담
P11	인문학	종교학	16	심층면담
P12	인문학	역사학	15	심층면담

데 구체적으로 과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과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관련된 편당의 유형, 그리고 과업 수행 시 느끼는 어려운 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과업의 특성에 관련하여 자연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식은 과업을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반면 인문학 분야는 과업이 개인적인 작업이자 독립적 연구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두 번째로, 두 그룹은 과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자연과학의 경우 모든 참여자들이 연구제안서 작성 과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반면, 인문학은 참여자가 모두 다른 수준으로 과업에 대한 중요도를 느끼고 있었다. 세 번째로 과업과 관련된 편당 유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연과학 연구자들은 모두 외부의 연구 그랜트라고 응답한 반면, 인문학자들은 펠로우십과 기관 보조금을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업과 관련된 어려운 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대부분 협업하는 활동이라고 응답한 반면,

인문학 분야에서는 적절한 편당 기회를 찾는 것이라 하였다. 〈표 4〉는 과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 집단 간의 차이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을 나타낸다.

두 그룹 간 연구계획서 작성 과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개인이 가진 편당 지원 동기 및 흥미, 특정 연구 분야 등과 관련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각 분야에 존재하는 연구 및 편당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 일반적인 학문 수행 방식 등과도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P4는 자연과학 분야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루어 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규범적 가치가 개인이 과업을 해석하는 데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연과학 분야에서 편당 수주가 학문적 성공을 나타내는 가치를 지니고 있고 연구 수행 및 연구실 운영을 가능하게 하도록 재정을 확보 해주기 때문에, 인문학에 비해 과업의 중요성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P3의 경우 연구 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이 분야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연구비 지원은

〈표 4〉 과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및 주요 인용¹⁾

구분	사고 공동체	주요 인용
과업의 특성	자연과학	“연구제안서를 작성할 땐 반드시 협업을 해야 합니다.” (P2) “이 연구에는 공동 연구책임자 8명이 있습니다.” (P3)
	인문학	“협업은 없습니다. (연구제안서 작성은) 연구자 개인을 위한 것이고 공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P9)
과업의 중요성	자연과학	“전 이것(연구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P4)
	인문학	“연구비는 인문학에서 흥미로운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P11)
과업 관련 편당 유형	자연과학	“저는 NSF(국립과학재단)와 국방부의 연구비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P5)
	인문학	“저는 (대학 이름)의 고등교육연구소에서 펠로우로 일하면서 한 학기 동안 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챕터를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P10)
과업의 어려운 점	자연과학	현재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제 제자 중 한 명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이름)과 컨설팅 회사 간에 공동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 팀원과 함께 일할 때마다 복잡성이 더해집니다.” (P2)
	인문학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적합한 편당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내 프로젝트가 편당 기관이 원하는 것과 얼마나 적절한지를 찾는 것입니다.” (P12)

연구자들이 해야 할 거의 필수 요건입니다.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연구비를 위한 제안서 작성이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자연과학 내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 및 규범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문학에서는 연구자로서 책을 출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학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학문적 성공과 발전을 위해 책을 쓰고 출판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책을 쓰도록 지원하는 펠로우십과 같은 편당 유형이 연구제안서 과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P11의 경우, 펠로우십을 지원하는 근본적 이유가 책을 쓰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 것 역시.

인문학 분야 내 존재하는 책 출간의 중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펠로우십을 받으려는 이유는 평소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관행적으로 독자적 연구 및 학습을 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Becher, 1994; Toms & O'Brien, 2008) 자연과학 분야와 달리 연구계획서 작성 과업을 협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두 그룹에서 공통의 과업에 대한 인식 및 해석의 차이는 각 분야의 본질적 특성과 각 분야에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에서도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이 특정 과업을 이해할 때 과업이 발생한 사회적 맥락에서 과

1)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함.

업을 해석하는 사회적 인지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3 과업의 정보 문제 도출

과업의 정보 문제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이에 대한 두 그룹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과업 수행자가 과업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과업의 구체적인 하위 과업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과업 수행자의 정보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련된 하위 과업에 있어서,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예산 책정, 공동 작업, 펀딩 수주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협업자와의 논의, 팀 구성, 학술 논문 작성, 연구 프로세스 계획, 새로운 아이디

어 구상 등이 두드러지는 하위 과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학 분야에서는 수업 진행과 연구의 중요성 도출이 자연과학 분야와 구분되는 주요 하위 과업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 분야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하위 과업이 관련 과업으로 인식되었고 인문학은 이러한 과업은 드러나지 않았고 보다 개인적인 하위 과업이 과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집단의 정보 요구를 비교한 결과 역시 차이를 발견하였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예산 관련 정보,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각종 데이터 및 도표, 타 연구자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였고, 인문학 분야에서는 주로 문헌, 원 자료, 자료 이용 가능성 여부, 강의 계획서 등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표 5>는 두 집

<표 5> 과업의 정보 문제 도출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및 주요 인용

구분	사고 공동체	주요 인용
하위 과업	자연과학	<p>예산 책정하기: “예산과 예산의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P4)</p> <p>협업 및 논의하기: “연구 제안서 작성은 그룹 대화에 가깝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대면 회의를 해야 합니다.” (P3)</p> <p>팀 구성하기: “지식이 부족하다면 지식을 갖춘 팀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협업의 연결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P1)</p>
	인문학	<p>강의하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관련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P8)</p> <p>연구의 중요성 도출하기: “제 프로젝트가 가치 있고 흥미롭고 사람들이 이전에 해보지 않은 혁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왜 가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항상 프로젝트의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9)</p>
정보 요구	자연과학	<p>예산 정보: “예산 정보가 필요합니다. ‘작업을 수행하면서 몇 개월의 연구자의 시간이 필요한가? 장비 비용은 얼마인가? 이것을 구매하고 싶은가? 내 예산이 너무 많은가? 아니면 너무 적은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예산 범위가 어디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P3)</p> <p>타 연구자의 실적: “(기관 이름)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나 해당 분야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필요합니다).” (P1)</p>
	인문학	<p>출판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 분야를 바라보는 새로운 출판물, 최근 출판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모아서 참고 문헌을 정리하고 널리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P8)</p> <p>원 자료: “1차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쇄된 자료일 수도 있고 (아카이브에) 보관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P12)</p>

단 간 정보 문제 인식에 대한 차이와 관련된 주요 인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집단의 정보 문제 인식에 대한 차이는 일반적인 연구 수행 방식 및 규범적 가치의 차이와 관련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과학 분야는 협업이 필요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하위 과업들이 파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예: 공동작업하기, 팀 구성하기, 협업자와 논의하기).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가 연구팀으로 수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하위 업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P3는 현재 연구 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속하여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저희 그룹은 큰 규모입니다. 대학원생, 기술자, 교수진까지 포함하면 우리 그룹에는 약 33명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학 연구에서 행정 및 협의 활동은 일반적인 주요 과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Stvilia et al., 2017). 그에 따라 이와 관련된 행정적인 하위 과업도 자연과학 분야에 특별히 더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문학의 경우 교육과 연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습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ckman et al., 2001), 그에 따라 인문학자들에게 연구계획서 작성의 주요 하위 과업에 강의 및 수업 활동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인문학자들은 수업과 연구를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P11은 인문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평소에 강의를 하면서 연구에 전념할 시간이 생길 때까지 연구를 강의로 접목시켜 연구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P12에 따르면 인문학 학자들이 편당 수주에 대한 성공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당에 지원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학문 분야만의 특수한 현실과 맞물려 연구계획서 작성의 주요 하위 과업으로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두 분야 간 상이한 관련 하위 과업은 더 나아가 각 분야의 주된 정보요구의 대한 차이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의 활동을 주요 하위 과업으로 인식하는 인문학은 강의계획서자료가 주된 정보요구 중 하나였던 반면, 협업을 주된 하위과업으로 여기는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다른 연구자의 전문성 및 실적이 정보요구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연과학의 경우 도표 및 데이터가 주된 정보요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험적 연구를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그림과 도표에 대한 중요성이 자연과학 분야에 있기 때문에(Donald, 1995; Hartley, 2006) 관련된 정보요구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주어진 과업의 구체적인 정보 문제를 도출할 때 과업 수행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정보 문제를 인식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과업 수행을 위한 정보행동

두 집단에서 과업 수행을 위한 정보활동 유형에 대해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크게 정보원 선택, 정보 관리 및 정보 소통 방식에서 그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정보원의 경우, 자연과학 분야는 연구실 구성원 및 행정부서 직원과 같은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한 정보원으로 나타

났고 그 외 PubMed, Web of Science와 같은 기술과학 분야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편집 수주 기관의 웹사이트가 주된 정보원으로 접근되었다. 반면 인문학 분야에서는 참고문헌 리스트, 각종 서적 및 문서의 각주 등이 주된 정보원이었고 소설 네트워킹 사이트, JSTOR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인문학 학자들은 책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일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출간된 책과 다양한 참고 문헌에 대해 접근하고 있었다.

정보 관리의 측면에서는 자연과학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와 문헌을 관리하는 반면, 인문학자의 경우 컴퓨터를 폴더를 사용하거나 종이 문서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 공유하였고 인문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소통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 6>은 두 집단 사이 과업 중심 정보활동에 대한 차이 및 주요 인용을 정리하였다.

<표 6> 과업 중심 정보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및 주요 인용

구분	사고 공동체	주요 인용
정보원 선택	자연과학	<p>“제가 주로 하는 일은 (사람 이름)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경리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안서 제출을 도와주죠. 제안서를 받은 후 돈을 지출하고 예산을 추적하고 사람들이 급여를 받는지 확인하는 등 모든 일을 도와주죠.” (P6)</p> <p>“그런 다음에는 Web of Science에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읽고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P2)</p> <p>“어제 (대학 내 연구비 담당 부서) 웹사이트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열미를 지금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P5)</p>
	인문학	<p>“저는 논문을 읽으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각주에서 더 많은 참고 문헌을 얻기도 합니다.” (P7)</p> <p>“academia.edu에는 중요한 것들이 피드에 올라옵니다. 여기서 종종 새로운 연구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팔로우하는 특정 저자도 있습니다.” (P9)</p> <p>“Jstor를 많이 사용합니다.” (P10)</p>
정보 관리	자연과학	<p>“저는 EndNote가 있습니다. EndNote 안에는 논문 그룹이 있습니다. 제 연구실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P5)</p>
	인문학	<p>“저는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컴퓨터가 제 두뇌라는 농담도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하위 폴더를 만들고,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P7)</p>
정보 커뮤니케이션	자연과학	<p>“우리는 수많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P3)</p> <p>“저와 같은 과학자나 교수들은 대부분 이메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니까요. 학생들이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저는 ‘아니, 이메일은 흔적이 남고 추적할 수 있지만 문자 메시지는 사라져버려요’라고 말하죠. 이메일은 첨부파일이나 파일 등을 보낼 수 있고 추적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P2)</p> <p>“5년 전에 제가 썼던 제안서는 제가 절반. 다른 사람이 절반을 썼어요. 다른 사람이 제안서의 절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EndNote 데이터베이스를 저에게 보냈습 니다.” (P5)</p>

이와 같은 정보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의 원인은 개인의 특정 연구 분야 및 주제, 소속된 기관(예: 대학교)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지만,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자연과학 분야 내 존재하는 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논의 및 협업 기반 연구 수행 방식으로 인해 역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이 자연과학 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하위 과업들을 발생하게 만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많이 일어났다. 따라서 과업으로부터 기인한 정보활동 역시 결국 과업이 놓인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수행되는 것이 드러났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로 공통의 과업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동이 사고 공동체 사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원인은 개인의 특성 및 과업 자체의 특성 뿐 아니라, 과업이 만들어지고 수행되는 사고 공동체의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각 사고 공동체에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관행이 개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과업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동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모델〈그림 1〉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개인의 과업 기반 정보추구 행위에 있어 과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social understanding)와 사회적 관련성(social relevance)과 같은 인지사회적 활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보행동의 인지사회적

요소는 주로 사고 공동체 내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관행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고 공동체로 선정된 각 학문 분야에서는 학술활동 및 연구와 관련하여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지에 대한 고유한 스타일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개인이 연구 제안서 작성 과제를 인식하고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분야는 협업 연구, 네트워킹의 중요성, 인문학 분야는 책 출간의 중요성 등이 존재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개인이 과업을 해석하고 수행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인지 구조는 커뮤니티 내에서 집합적으로 구성되며, 이를 사회적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의 역할은 Byström(2007)이 설명한 과업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Byström(2007)에 따르면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정보활동은 과업이 등장하는 맥락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규범 구조를 따른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고 공동체인 특정 분야의 학술 활동 관련 암묵적 규범에 영향을 받아 연구 제안서 과업을 이해하고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집단의 관행이 개인의 과업의 이해 및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관행이란 구성원 간 공유되어 있는 집합적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Wenger, 1999). 데이터 분석 결과, 각 분야마다 일반적인 학술 활동과 정보 수집 방법에 있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관습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의 경우 토의 및 토론, 인문학은 독자적 연구, 수업과 강의의 연결 등의 방식이 존재하였는데 개인이 이러한 분야 내 관행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받아 과업을 해석하고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 활동이 개인이 속한 사고 공동체에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관습적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과업과 커뮤니티 내 관행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Byström과 Lloyd(2012)는 과업 수행 방법에 대한 지식이 커뮤니티 내 존재하는 관습의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고 Talja와 Nyce(2015)도 과업 수행을 커뮤니티에 속한 구성원이 커뮤니티 내 사회적 자원과 상호작용하는 일상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인과 과업 수행과 커뮤니티의 관습 간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보행동 연구 및 정보시스템 설계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본 연구가 과업과 관련된 사회적 인지행위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맥락과 과업 중심 정보 행동 간의 관계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정보행동 연구에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정보행동의 사회적 측면은 사회집단의 공통의 행위에 초점을 두었는데 본 연구에선 인지 사회학 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정보행동의 새로운 사회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보추구의 인지사회학적 측면에 대한 탐구는 정보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폭을 넓히고 정보행위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에 대한 분석 렌즈를 다양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보추구행동의 인지사회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이 상이한 정보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기존 정보행동 및 정보관행(information practices)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된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지사회학적 요인인 사회적 이해와 사회적 관련성은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 개인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일한 집단 내 구성원들이 유사한 정보행동을 보이는 반면, 집단 외부의 사람들과는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 및 정보행동 분야의 유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정보를 탐색할 때 인적자원을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인지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과학 분야 공동체 내에서의 인지적 사회화(cognitive socialization)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공동 연구의 사회적 규범과 협업하는 실천 방식 등과 같은 분야 내 중요한 가치를 학습하여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행동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특정 사회문화적 집단을 위한 정보 시스템 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성할 때 사용자 그룹의 과업 및 요구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추구행위의 인지사회적 요소와 사회집단의 규범 및 관행적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정보 시스템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특정 사회집단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질적 연구로서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질문에 대해 탐색하는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를 시킬 수 없다. 향후 양적 연구 도구를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탐색적 수준에서 나아가 정보추구행위의 인지사회적 요소를 확인하는 확장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학문 분야라는 특정 유형의 사고 공동체와 그러한 공동체에서 자주 수행되는 특정 유형의 과업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커뮤니티나 과업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

지사회학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고 공동체(예: 직업, 종교, 세대 등)와 다른 과업을 선정하여 사고 공동체의 사회적 요소와 개인의 인지 활동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가적 방법으로 다이어리 연구가 한 차례만 수행되었는데, 인터뷰 방법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주된 데이터 수집 도구로 사용될 때 더욱 풍부한 질적 데이터를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이어리 연구의 참여자를 확대하여 인지사회적 측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Becher, T. (1994). The significance of disciplinary differenc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19(2), 151-161. <https://doi.org/10.1080/03075079412331382007>
- Belkin, N. J., Oddy, R. N., & Brooks, H. M. (1982). ASK for information retrieval: Part I. Background and theory. *Journal of Documentation*, 38(2), 61-71. <https://doi.org/10.1108/eb026722>
- Bell, D. J. & Ruthven, I. (2004). Searcher's Assessments of Task Complexity for Web Searching. In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Retrieval. Berlin: Springer Berlin Heidelberg, 57-71. https://doi.org/10.1007/978-3-540-24752-4_5
- Brand-Gruwel, S., Kammerer, Y., Meeuwen, L., & Gog, T. (2017). Source evaluation of domain experts and novices during web search.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33(3), 234-251. <https://doi.org/10.1111/jcal.12162>
- Brekhus, W. (2015). Culture and Cognition: Patterns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Massachusetts: Polity Press.
- Brockman, W. S., Neumann, L., Palmer, C. L., & Tidline, T. J. (2001). Scholarly Work in the Humanities and the Evolving Information Environment. Washington DC: Digital Library

- Federation,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 Byström, K. & Hansen, P. (2005). Conceptual framework for tasks in information studi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6(10), 1050-1061.
<https://doi.org/10.1002/asi.20197>
- Byström, K. & Järvelin, K. (1995). Task complexity affects information seeking and use.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1(2), 191-213. [https://doi.org/10.1016/0306-4573\(95\)80035-R](https://doi.org/10.1016/0306-4573(95)80035-R)
- Byström, K. & Kumpulainen, S. (2020).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amongst task-based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57(2), 102065.
<https://doi.org/10.1016/j.ipm.2019.102065>
- Byström, K. & Lloyd, A. (2012). Practice theory and work task performance: How are they related and how can they contribute to a study of information practice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9(1), 1-5.
<https://doi.org/10.1002/meet.14504901252>
- Byström, K. (2002).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ources in tasks of varying complexi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3(7), 581-591.
<https://doi.org/10.1002/asi.10064>
- Byström, K. (2007). Approaches to “task” in contemporary information studies. *Information Research*, 12(4), 12-14. Available: <http://InformationR.net/ir/12-1/colis/colis26.html>
- Corbin, J. & Strauss, A. (2015).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Dill, D. D. (1986). Research as a scholarly activity: Context and culture. *New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search*, 13(2), 7-23. <https://doi.org/10.1002/ir.37019865003>
- Donald, J. G. (1995). Disciplinary differences in knowledge validation.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64, 7-17. <https://doi.org/10.1002/tl.37219956404>
- Durkheim, E. (2005). The dualism of human nature and its social conditions. *Durkheimian Studies*, 11(1), 35-45. <https://doi.org/10.3167/175223005783472211>
- Fleck, L. (1981). *Genesis and Development of a Scientific Fact*.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wizdka, J. & Spence, I. (2006). What can searching behavior tell us about the difficulty of information tasks? a study of web navigatio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3(1), 1-22. <https://doi.org/10.1002/meet.14504301167>

- Hartley, J. (2006). Reading and writing book reviews across the disciplin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9), 1194-1207.
<https://doi.org/10.1002/asi.20399>
- Hembrooke, H. A., Granka, L. A., Gay, G. K., & Liddy, E. D. (2005). The effects of expertise and feedback on search term selection and subsequent learning.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6(8), 861-871. <https://doi.org/10.1002/asi.20180>
- Ingwersen, P. & Järvelin, K. (2006). *The Turn: Integration of Information Seeking and Retrieval in Context* (Vol. 18). Dordrecht, Netherland: Springer.
<https://doi.org/10.1007/1-4020-3851-8>
- Jiang, J., He, D., & Allan, J. (2014). Searching, browsing, and clicking in a search session: Changes in user behavior by task and over time. In Proceedings of the 37th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ence on Research & Dev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607-616.
<https://doi.org/10.1145/2600428.2609633>
- Kallehauge, J. (2010). Stage-driven information seeking process: Value and uncertainty of work tasks from initiation to resolutio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6(2), 242-262.
<https://doi.org/10.1177/0165551509360142>
- Kim, J. (2006). Task difficulty as a predictor and indicator of web searching interaction. *CHI'06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959-964.
<https://doi.org/10.1145/1125451.1125636>
- Knorr-Cetina, K. K. (1999). *Epistemic Cultures: How the Sciences Make Knowle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Kurasaki, K. S. (2000). Intercoder reliability for validating conclusions drawn from open-ended interview data. *Field Methods*, 12(3), 179-194.
<https://doi.org/10.1177/1525822X0001200301>
- Lamont, M. (2009). *How Professors Think: Inside the Curious World of Academic Judgment*.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4159/9780674054158>
- Leckie, G. J., Pettigrew, K. E., & Sylvain, C. (1996). Modeling the information seeking of professionals: A general model derived from research on engineer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lawyers. *The Library Quarterly*, 66(2), 161-193. <https://doi.org/10.1086/602864>
- Li, Y. & Belkin, N. J. (2008). A faceted approach to conceptualizing tasks in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4(6), 1822-1837.
<https://doi.org/10.1016/j.ipm.2008.07.005>
- Li, Y. & Belkin, N. J. (2010).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task and interactive

- information search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1(9), 1771-1789. <https://doi.org/10.1002/asi.21359>
- Liu, J., Cole, M. J., Liu, C., Bierig, R., Gwizdka, J., Belkin, N. J., Zhang, J., & Zhang, X. (2010). Search behaviors in different task types. In *Proceedings of the 10th Annual Joint Conference on Digital Libraries*, 69-78. <https://doi.org/10.1145/1816123.1816134>
- Lombard, M., Snyder-Duch, J., & Bracken, C. C. (2002). Content analysis in mass communicatio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intercoder reliabil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4), 587-604. <https://doi.org/10.1111/j.1468-2958.2002.tb00826.x>
- Mannheim, K. (1949).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Marchionini, G. (1997). *Information Seeking in Electronic Environments* (No. 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psycnet.apa.org/doi/10.1017/CBO9780511626388>
- Rha, E. Y. (2018). Social aspects of task-base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The conceptual integration of cognitive sociology and practice theory. In *Proceedings of the 2018 Conference on Human Information Interaction & Retrieval*, 293-296. <https://doi.org/10.1145/3176349.317688>
- Saastamoinen, M. & Järvelin, K. (2017). Search task features in work tasks of varying types and complexit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8(5), 1111-1123. <https://doi.org/10.1002/asi.23766>
- Savolainen, R.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3), 259-294. [https://doi.org/10.1016/0740-8188\(95\)90048-9](https://doi.org/10.1016/0740-8188(95)90048-9)
- Stvilia, B., Hinnant, C. C., Wu, S., Worrall, A., Lee, D. J., Burnett, K., Kazmer, M. M., & Marty, P. F. (2017). Toward collaborator selection and determination of data ownership and publication authorship in research collaborati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9(2), 85-97. <https://doi.org/10.1016/j.lisr.2017.03.004>
- Talja, S. & Nyce, J. M. (2015). The problem with problematic situations: Differences between practices, tasks, and situations as units of analysi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7(1), 61-67. <https://doi.org/10.1016/j.lisr.2014.06.005>
- Toms, E. G. & O'Brien, H. L. (2008).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needs of the e-humanist. *Journal of Documentation*, 64(1), 102-130. <https://doi.org/10.1108/00220410810844178>
- Toms, E. G. (2011). Task-based Information Searching and Retrieval. In I. Ruthven & D. Kelly

- (Eds.), *Interactive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and Retrieval*. United Kingdom: Facet Publishing, 43-60.
- Toms, E. G., O'Brien, H., Mackenzie, T., Jordan, C., Freund, L., Toze, S., Dawe, E., & Macnutt, A. (2008). Task Effects on Interactive Search: The Query Factor. In: *Focused Access to XML Documents*. Berlin: Springer, 359-372.
https://doi.org/10.1007/978-3-540-85902-4_31
- Vakkari, P. (2003). Task-based information searching.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7(1), 413-464.
- Wenger, E. (1999).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 R. W., Dumais, S. T., & Teevan, J. (2009). Characterizing the influence of domain expertise on web search behavior.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arch and Data Mining*, 132-141. <https://doi.org/10.1145/1498759.1498819>
- Wildemuth, B. M. (2004). The effects of domain knowledge on search tactic formul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5(3), 246-258.
<https://doi.org/10.1002/asi.10367>
- Zerubavel, E. (1993). Horizons: on the sociomental foundations of relevance. *Social Research*, 60(2), 397-413.
- Zerubavel, E. (1995). The rigid, the fuzzy, and the flexible: Notes on the mental sculpting of academic identity. *Social Research*, 1093-1106.
- Zerubavel, E. (2009). *Social Mindscapes: An Invitation to Cognitive Sociolog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Zerubavel, E. (2015). *Hidden in Plain Sight: The Social Structure of Irrelev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psycnet.apa.org/doi/10.1093/acprof:oso/9780199366606.001.0001>
- Zhang, Y. & Gwizdka, J. (2014). Effects of tasks at similar and different complexity level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1(1), 1-4.
<https://doi.org/10.1002/meet.2014.14505101078>

